

경구 항바이러스 약제 치료를 받는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에서 신기능 악화의 위험인자 분석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

신정호, 구은희, 박지현, 장혜련, 이정은, 허우성, 김윤구, 김대중, 오하영

Risk Factors Predicting Renal Functional Decline in Patients Receiving Antiviral Agent Treatment for Chronic Hepatitis B

Jung-ho Shin, Eun Hee Koo, Ji Hyeon Park, Jang Hye Ryou, Jung-Eun Lee, Huh Wooseong
Yoon-Goo Kim, Dae Joong Kim, Ha Young Oh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amsung Medical Center Department of Medicine

경구 항바이러스 약제를 복용하는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에서 항바이러스 약제 자체의 신독성 및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동반 질환에 의해 신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신기능 악화는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의 항바이러스 약제 선택 및 장기 치료에 제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예후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에서 신기능 저하를 완화시킬 수 있는 주요 임상 정보를 얻기 위해, 경구 항바이러스 약제를 복용하는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기능 악화에 기여하는 위험인자를 분석하였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만성 B형 간염으로 항바이러스 약제를 처방 받았고 6개월 이상 추적 관찰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총 4686명의 환자들(남:여=3270:1416)의 임상 자료를 분석하였고, 추적 관찰 기간은 평균 19.7±16.4개월이었다. 모든 환자들에서 lamivudine (20.6%), entecavir (66.2%), tenofovir (3.7%), clevudine (5.3%), telbivudine (0.7%) 중 한 가지 항바이러스 약제가 투약되었거나 이러한 약제와 adefovir 복합 치료(3.5%)가 시행되었다.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사구체여과율(eGFR)이 25% 이상 감소한 환자들은 총 609 (13.0%)명이었고, 연령, 기저 만성콩팥병, 고혈압, 당뇨, 간이식, 안지오텐신 차단제, 이노제, 저알부민혈증 및 ALT 상승이 유의하게 높은 hazard ratio (HR)를 보였고, 기저 혈청 HBV DNA 역가가 높은 경우는 낮은 HR 를 보였다($p<0.01$). Entecavir와 clevudine이 lamivudine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HR 를 보였다($p=0.003$ & $p<0.001$). eGFR이 5 ml/min/1.73m²/year 이상 감소하는 급속 신기능 저하군은 278 (5.9%)명이었고, 연령, 고혈압, 당뇨, 간이식, 안지오텐신 차단제, 이노제, 저알부민혈증과 ALT 상승이 유의하게 높은 odds ratio (OR)를 보였다($p<0.05$). 반면, 기저 혈청 HBV DNA 역가는 낮은 OR를 보였다($p=0.030$). 약제로는 clevudine만이 lamivudine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OR를 보였다($p=0.001$). 항바이러스 약제 치료를 받는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에서 고령, 고혈압, 당뇨, 간이식과 안지오텐신 차단제 또는 이노제 투약은 신기능 악화의 위험인자로 확인되었고, 기저 저알부민혈증과 ALT 상승 및 상대적으로 낮은 HBV DNA 역가를 보일수록 신기능 악화의 위험도는 증가하였다.

Key Words: 경구 항바이러스 약제, 만성 B형 간염, 신기능 악화

Antiviral agent, Chronic hepatitis B, Renal function decline